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여주*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Yeojuo Cha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20세 이상 성인 147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0.2%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 사회적 영향, 위험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COVID-19 risk perception, antibody knowledge, social influence,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for general adult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7 adul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7.0 program using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the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h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the social influence, the COVID-19 risk perception,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health. The factor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of the general adult was a social influence,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50.2%. As a result of this study, COVID-19 antibody tests may be used by preparing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infection.

Key Words : COVID-19, Antibody test, Intention of acception, Social influence, Risk percep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2020년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키며 2023년 3월 13일 현재 총 676,609,955명의 확진자를 보고하고 있으며[1],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확진자 30,638,929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이후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고심해 왔는데, 그 중 2020년 미국에서 Pfizer의 백신이 처음 FDA 긴급승인이 난 이후 Moderna, Janssen, Novavax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3]. 코로나19의 치료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를 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막고 있고, 생활속의 거리두기를 이용한 감염자 수를 감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2].

항체검사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염예방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2년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7,528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전체 항체양성률은 98.6%로 확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4].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전파력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화항체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5].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중화항체 생성 검사 방식은 conventional virus neutralization test (cVNT) 방식이나 pseudovirus-based virus neutralization test (pVNT)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6]. 그러나 이 중화항체 검사법은 실험의 민감도가 낮으며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48-96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7]. 이에 코로나19의 자연 감염이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항체검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IgG 항체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8]. 이 검사법은 란셋을 활용한 소량의 피로 10분~15분에 걸쳐 간단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8].

사회적 영향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9]. 사회적 영향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관련된 인식이다[9]. 대상자 주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대상자에게 해당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대상자는 다소 불편함

이 있더라도 행위를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영향이 기술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9].

위험지각은 대상자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개인이 가지는 인지과정이자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10]. 이는 실제 위험의 정도 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인지되는 정도가 달라져 주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지각은 인지적 위험지각과 정서적 위험지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지적 위험지각은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지각성으로 정의되며 정서적 위험지각은 코로나19 위험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의미한다[11]. 따라서 코로나19에 관한 위험지각과 항체검사 수용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항체검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 항체양성률 검사[4],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후의 항체검사 검출률에 관한 연구[12], 의료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항체검사에 관한 인식도 연구[13]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식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파악할 파악하고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확률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으로 설정한 후 중간효과크기(f)=0.15, 검정력 ($1-\beta$)=.80, 유의수준(α)=.05, 예측요인을 10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수가 118명으로 나타났으며, 탈락률 25%를 고려하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14]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한 총 14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Speake et al. [15]이 개발한 Perceived Health Status의 도구를 권유림 & 전해옥[16]이 번역, 역번역하여 수정보완한 3개의 측정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권유림 & 전해옥[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2.3.2 코로나19 위험지각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위험지각은 Bae & Chang [11]의 연구에서 인지적 위험지각과 정서적 위험지각의 문항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각각 3개와 5개의 측정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Bae & Chang [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인지적 위험지각 Cronbach $\alpha = .77$, 정서적 위험지각 Cronbach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이며,

인지적 위험지각 Cronbach $\alpha = .72$, 정서적 위험지각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2.3.3 항체지식

본 연구에서 항체지식은 질병관리청(2021)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항체검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코로나19 항체검사에 관한 지식 항목을 목록화한 후 문항으로 도출하였다[17]. 코로나19 항체검사 지식에 관한 설문 문항은 최초 10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감염전문간호사 1인, 간호대 교수 1인, 의대교수 1인의 총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검증 받은 결과 10문항 모두 CVI 값이 0.80이상으로 나타나 이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KR20 = .64이었다.

2.3.4 사회적 영향

본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은 Venkatesh, et al. [9]이 개발하고 심운정[18]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4개의 측정 문항을 7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심운정[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2.3.5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코로나19 항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나 계획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검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지에 대한 의사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Ajzen & Madden [19]이 개발하고 이주리 & 이은경[20]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3개의 측정문항을 7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주리 & 이은경[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5$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

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시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도중 언제든지 설문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목적외로 사용될 것과 설문자료는 종료 후 3년 뒤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설문 동의의 문항에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명시하여 언제든지 문의 사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도 원할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에 응한 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관련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코로나19 관련 특성 및 그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80명(54.4%), 남자 67명(45.6%)이었고, 연령은 평균 41.39±10.17세로 30-40세 미만 52명(35.4%), 40-50세 미만 47명(32.0%), 50-60세 미만 24명(16.3%), 30세 미만 16명(10.9%), 60세 이상 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87명(59.2%), 기혼 52명(35.4%), 기타 8명(5.4%)이었고, 직업은 관리/전문/사무직 64명(43.5%), 기타(학생, 주부 포함) 37명(25.2%), 생산/기능직 17명(11.6%), 서비스/판매/영업직 16명(10.9%), 보건/의료/관련직 13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관련 특성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1회 감염 84명(57.1%), 미감염 57명(38.8%), 2회 감염 6명(4.1%)이었고, 감염경험자 중 치료방법은 재택치료 82명(55.8%), 의료기관 8명(5.4%)이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는 3회 이상 77명(52.4%), 2회 51명(34.7%), 미접

종 11명(7.5%), 1회 8명(5.4%) 순이었고, 지각된 코로나19의 항체 지속기간은 6개월 미만 75명(51.0%), 6-8개월 미만 30명(20.4%), 8개월 이상 18명(12.2%), 안 생겼다 18명(12.2%), 영원히 6명(4.1%) 순으로 답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관련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of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M±SD	t or f(p)
Gender	Male	67(45.6)	4.36±1.48	1.80(.074)
	Female	80(54.4)	3.92±1.51	
Age (year)		41.39±10.17		
	>30	16(10.9)	4.02±1.76	0.51(.729)
	30-39	52(35.4)	4.17±1.53	
	40-49	47(32.0)	4.22±1.32	
	50-59	24(16.3)	4.13±1.42	
60≤	8(5.4)	3.42±2.22		
Marital status	Unmarried	87(59.2)	4.00±1.47	0.69(.503)
	Married	52(35.4)	4.26±1.47	
	Others	8(5.4)	4.46±2.15	
Education	High school	33(22.4)	3.79±1.61	1.07(.347)
	College	96(65.3)	4.20±1.48	
	Graduate school	18(12.2)	4.30±1.45	
Job	manager/ Profession/ Officer	64(43.5)	4.03±1.43	1.73(.147)
	Service worker/seller/sales job	16(10.9)	4.52±1.76	
	Functional/Skilled worker	17(11.6)	3.80±1.05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	13(8.8)	4.97±1.11	
	None	37(25.2)	3.95±1.73	
infection	1 time	84(57.1)	4.16±1.55	0.94(.392)
	2 times or more	6(4.1)	4.83±1.13	
	None	57(38.8)	3.98±1.48	
Treatment (n=90)	Hospital	8(5.4)	5.13±0.96	1.80(.075)
	Home	82(55.8)	4.12±1.55	
vaccination	None	11(7.5)	3.48±1.27	1.01(.391)
	1 time	8(5.4)	3.88±0.94	
	2 times	51(34.7)	4.07±1.50	
	3 times or more	77(52.4)	4.27±1.58	
perceived antibody duration	Forever	6(4.1)	4.89±1.53	1.32(.266)
	Less than 6 months	75(51.0)	4.16±1.54	
	6-8 months	30(20.4)	4.18±1.36	
	more than 8 months	18(12.2)	4.26±1.26	
	notation	18(12.2)	3.46±1.74	

3.2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3.20±0.72, 코로나19 위험지각 3.71±0.67, 인지적 위험지각 3.84±0.68, 정서적 위험지각 3.64±0.81, 항체지식 4.65±2.03, 사회적 영향 4.28±1.27,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4.12±1.51 이었다(Table 2 참고).

Table 2. Degree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COVID-19 risk perception, antibody knowledge, social influence and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N=147)

Variables	Range	M±SD
subjective health status	1-5	3.20±0.72
COVID-19 risk perception	1-5	3.71±0.67
cognitive risk perception	1-5	3.84±0.68
emotional risk perception	1-5	3.64±0.81
antibody knowledge	0-10	4.65±2.03
social influence	1-7	4.28±1.27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1-7	4.12±1.51

3.3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사회적 영향(r=.70, p<.001), 코로나19 위험지각(r=.18, p=.028), 항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COVID-19 risk perception, antibody knowledge, social influence and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N=147)

	1	2	3	4	5	6	7
	r(p)	r(p)	r(p)	r(p)	r(p)	r(p)	r(p)
subjective health status(1)	1						
COVID-19 risk perception(2)	-0.21 (.010)	1					
cognitive risk perception(3)	-0.05 (.572)	0.76 (<.001)	1				
emotional risk perception(4)	-0.26 (.002)	0.95 (<.001)	0.50 (<.001)	1			
antibody knowledge(5)	0.13 (.118)	-0.01 (.973)	0.05 (.526)	-0.03 (.717)	1		
social influence(6)	-0.10 (.226)	0.13 (.120)	0.04 (.606)	0.15 (.072)	-0.07 (.408)	1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7)	-0.19 (.025)	0.18 (.028)	0.11 (.169)	0.18 (.027)	-0.06 (.452)	0.70 (<.001)	1

체지식(r=.18, p=.027)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r=-.19, p=.025)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적 위험지각은 코로나19 위험지각(r=.95, p<.001), 인지적 위험지각(r=.5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r=-.26, p=.002)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지적 위험지각은 위험지각(r=.76,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코로나19 위험지각은 주관적 건강상태(r=-.21, p=.010)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자료는 정규분포하였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2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Tolerance 0.91~0.97, VIF 1.03~1.1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본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 주관적 건강상태, 정서적 위험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β=11.60)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변수의 총 설명력은 50.2%였다(F=50.49,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intention of acceptance of the COVID-19 antibody test (N=14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6	.70		1.37	.173
social influence	0.82	0.07	0.68	11.60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0.22	0.13	-0.11	-1.76	.080
emotional risk perception	0.10	0.11	0.06	0.90	.370

Adj R²= .502 F(p)= 50.49(<.001)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 검사에 대한 수용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코로나19 항체 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일반 성인으로 온라인 설문 에 응한 사람에 한해 시도되었다. 대상자 중 61.2%가 코로나19에 감염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로, 연구 진행 당시인 2022년 9월의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769,101명으로 나타나 약 50%가량의 확진자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2].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8.8%가 보건/의료 관련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관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로 구성하였는데, 확진 경험이 있는 군이 코로나19나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사회적 영향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와 사회적 영향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었지만 유헤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21], 의학정보 콘텐츠 수용의도와 사회적 규범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 연구[22]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영향은 대상자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0.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다양한 의료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로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21, 22]. 사회적 영향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로 인해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9],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나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로운 정보 기술이 아닌 새로운 검사방법에 관한 수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에는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신속항체검사로는 코로나19 감염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면역력의 정도나 항체의 지속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17].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의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유익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코로나19 항체검사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건강과

관련된 행위 예측에 주요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23].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못하다고 판단할수록 코로나19에 관한 감염을 염려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검사에 대한 수용의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와 코로나19 위험지각과의 관계를 본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은 코로나19 관련 예방행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2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이처럼 코로나19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또는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게 지각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항체검사 수용의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코로나19의 위험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성인 147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코로나19 위험지각, 항체지식,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한 수용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는 사회적 영향, 코로나19 위험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50.2%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항체검사는 감염이력, 면역력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추출을 하였고, 설문방법도 온라인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을 전체 성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 의도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한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의도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항체검사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기술수용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주요 변수로 지칭하고 있는 통합적 기술수용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ohns Hopkins University (2023). *COVID-19 Dashboard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CSSE)* [sited by :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dashboards/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last visited on 13 March 2023]
-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Coronavirus (COVID-19), Republic of Korea* [sited by <https://ncov.kdca.go.kr/>, last visited on 13 March 2023]
- [3] FDA. (2023) *COVID-19 Vaccines*. <https://www.fda.gov/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covid-19-vaccines> [Online] (13 March 2023).
- [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Nation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ationwide Corona 19 antibody training rate secondary investigation results announced*. [sited by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21678, last visited on 14 March 2023]
- [5] Y. Zhang et al. (2021). Safety, tolerability, and immunogenicity of an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in healthy adults aged 18-59 years: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1/2 clinical trial. *Lancet Infect Dis*, 21, 181-92. DOI : 10.1016/S1473-3099(20)30843-4
- [6] A. E. Muruato. et al. (2020). A high-throughput neutralizing antibody assay for COVID-19 diagnosis and vaccine evaluation. *Nat Commun*. 11, 4059. DOI : 10.1038/s41467-020-17892-0
- [7] B. Bosnjak. et al (2020). Low serum neutralizing anti-SARS-CoV-2 S antibody levels in mildly affected COVID-19 convalescent patients revealed by two different detection methods. *Cellular & Molecular Immunology*, 18(4), 936-944. DOI : 10.1038/s41423-020-00573-9
- [8] Roche (2023). *SARS CoV-2 Rapid Antibody Test 2.0*. [sited by <https://diagnostics.roche.com/global/en/products/params/sars-cov-2-rapid-antibody-test.html>, last visited on 13 March 2023]
- [9] V. Venkatesh., M. G. Morris., B. Gordon., & F. D. Davis.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DOI : 10.2307/30036540
- [10] R. A. Bauer. (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43, 384-398.
- [11] S. Y. Bae., P. J. Chang. (2021). The effe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risk perception on behavioural intention towards 'untact' tour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wave of the pandemic (March 2020). *Current Issues in Tourism*, 24(7), 1017-1035. DOI : 10.1080/13683500.2020.1798895
- [12] K. H. Roh., H. Choi., H. K. Choi., M. Yoon., J. Yoo., Y. Park. (2022). Antibody Detection in Healthcare Workers after Vaccination with Two Doses of the BNT162b2 or ChAdOx1 Vaccine.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 25(3), 91-101. DOI : 10.5145/ACM.2022.25.3.4
- [13] N. Shimasaki., J. Ishii., T. Kuwahara., H. Nishijima. (2023). A Brief Questionnaire on Healthcare Workers' Awareness Toward the COVID-19 Vaccine and Antibody Tests. *Journal of Disaster Research*, 18(1), 21-26. DOI : 10.20965/jdr.2023.p0021
- [14] H. Sim., M. Kim., K. Jeong., J. Heo., E. Choi. (2014).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31(4), 97-108.

- [15] D. L. Speake., M. E. Cowart., & K. Pellet. (1989). Health perceptions and lifestyles of the elderl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2), 93-100.
- [16] Y. R. Kwon., & H. O. Jeon. (2013). Effects of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Family Function on Expectations Regarding Aging among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43(2), 176-184.
DOI : 10.4040/jkan.2013.43.2.176
- [17]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COVID-19 Q&A*. [sited by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act=view&list_no=145336(2022.07.18.) last visited on 13 March 2023]
- [18] Y. J. Shim.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o fintech service adoption using the UTAUT model*.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9] I. Ajzen., & T. J. Madden. (1986). Predica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 Exp Soc Psychol* 22(5), 453-474.
DOI : 10.1016/0022-1031(86)90045-4
- [20] J. L. Lee., & E. K. Lee.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pneumococcal vaccinations in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Nurs* 20(1), 1-9.
DOI : 10.17079/jkgn.2018.20.1.1
- [21] S. M. Kim., & C. W. Lee. (2013). Usage Intention of u-Healthcare Service Using Unified Theory of Technology Adoption and Usa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379-388. DOI : 10.5392/JKCA.2013.13.12.379
- [22] J. Y. Lee., & M. J. Han. (2020). Exploratory Study on Searching for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of Continuous Use and Intention of Distribution of YouTube Medical Information. *Advertising Research*, 126, 80-109.
DOI : 10.16914/ar.2020.126.80
- [23] D. L. Speake., M. E. Cowart., & K. Pellet. (1989). Health perceptions and lifestyles of the elderl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2), 93-100.
- [24] S. J. Lee., X. Jin., & S. Lee. (2021).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Knowledge, Risk Percepti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3(2), 110-118.
DOI : 10.7586/jkbns.2021.23.2.110
- [25] W. Lee., & S. Ahn. (2022). Risk Perception and Vaccination Intention towards COVID-19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6(6), 388-425.
DOI : 10.20879/kjcs.2022.66.6.011

채 여 주 (Yeoju Chae)

[정회원]



- 2020년 2월 :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지역사회간호학 박사)
- 2022년 3월~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웰니스
- E-Mail : yjchae413@hanmail.net